#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과 일본어 「Vてしまう」문의 내부구조와 의미*

박용일**
pyongil17055@hanmail.net

<目次>

1. 서론
2. 선행연구
3. 의미적 측면에서의 대응관계
3.1 상(aspect)의 의미
3.2 모달리티(modality)의 의미
4. 통사적 측면에서의 대응관계
5. 의미와 내부구조의 대응관계
6. 결론

主題語: 의미(Meaning), 내부구조(Internal Structure), 대응(Corresponding), 한국어(Korean), 「Vてしまう」문 (「Vtesimau」 Sentence)

## 1. 서론

일본어를 한국어로 표현할 경우 두 개의 한국어 표현으로 나타나는 일본어 구문들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太郎がご飯を食べ始めた。」라는 문은 한국어 표현으로 「타로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와 「타로는 밥을 먹기를 시작했다.」와 같이 두 개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일본어 구문에서 두 개의 한국어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 혹은 하나의 한국어 구문에서 두 개의 일본어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는 의미와 통사의 관계가 단순히 일대일 대응관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와 한국어의 비교고찰에 있어서 흥미로운 고찰 대상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하나의 일본어 구문에서 두 개의 한국어 표현이 나타나는 구문들 가운데 일본어의 「Vてしまう」문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로 표현을 고찰 대상으로 삼고, 이들 구문들의 의미해석과 통사구조의 대응관계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통사적 측면에서의 대응관계는 내부구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가톨릭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조교수

일본어의 「Vてしまう」문은 한국어 표현으로 나타낼 경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표현으로 나타난다.

(1) a. 歯磨き粉を体の中に入れてしまった。
b. 치약을 몸속에 넣어 버렸다.
c. 치약을 몸속에 넣고 말았다.
(2) a. 自助努力というのを忘れてしまった。
b. 자구노력이라는 것을 잊어 버렸다.
c. 자구노력이라는 것을 잊고 말았다.
(3) a. 人生を変えてしまった。
b. 인생을 바꿔 버렸다.
c. 인생을 바꾸고 말았다.
(4) a. 薬を使ってしまった。
b. 약을 써 버렸다.
c. 약을 쓰고 말았다.

「Vてしまう」문 (1a)-(4a)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으로 「V어 버리다」문 (1b)-(4b)와 「V고 말다」문 (1c)-(4c)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본어의 「Vてしまう」문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이 항상 「V어 버리다」문과 「V고 말다」문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5) a. その行為のせいで、不幸を招いてしまった。
b.*그 행위로 인해 불행을 초래해 버렸다.
c. 그 행위로 인해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다.

(6) a. 一挙にやってしまえ！
b. 한꺼번에 해 버려라!
c.*한꺼번에 하고 말아라!

(5)-(6)에서 알 수 있듯이, 「Vてしまう」문 (5a)가 한국어 표현으로 「V어 버리다」문 (5b)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V고 말다」문 (5c)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Vてしまう」문 (6a)가 한국어 표현으로 「V고 말다」문 (6c)로는 나타나지 않고 「V어 버리다」문 (6b)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어의 「Vてしまう」문이 의미적으로도 통사적으로도 한국어

의 「V어 버리다」문과 「V고 말다」문에 대응하는 두 개의 「Vてしまう」문을 상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고에서는 일본어의 「Vてしまう」문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한국어 표현인 「V어 버리다」문과 「V고 말다」문의 의미해석과 통사구조를 명시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이들 구문들의 통사구조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내부구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며, 이를 기초로 일본어의 「Vてしまう」문과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들이 나타내는 의미해석과의 내부구조의 대응관계를 고찰해 나갈 것이다.[1] 구체적으로는 상(aspect)을 나타내는 「Vてしまう」문과 이와 대응하는 한국어의 「V어 버리다」문은 내부구조에 있어서 컨트롤(control)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상(aspect)과 모달리티(modality)를 모두 나타내는 「Vてしまう」문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V고 말다」문의 내부구조는 상승(raising)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명시할 것이다.

## 2. 선행연구

일본어 연구에서 「Vてしまう」구문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아직까지 일치한 견해를 보이고 있지 않다(cf.高橋 1969, 吉川 1973, 井上 1976, 寺村 1984, 杉本 1991/1992, 倉持 200, 등). 「Vてしまう」구문의 통사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주로 「V-て-보조동사」구문의 연구 속에서 조금씩 언급 되어져 왔다(cf.影山 1993, 三原 1997, 졸고 2005, 등).[2]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어의 「Vてしまう」구문은 그 대부분이 의미적인 측면에서의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일본어 「Vてしまう」문의 통사구조 연구에 있어서, 표면구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2006)에서 다루고 있다.

2) 졸고(2005)의 경우 「Vてしまう」구문의 심층구조와 표면구조에 나타나는 단문구조와 복문구조라는 구조적 유형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Vてしまう」구문의 내부구조에 대한 논의의 아니다.

<표 1> 「Vてしまう」문의 의미론적 논의

| | |
|---|---|
| 井上(1976), 寺村(1984), 杉本(1991/1992), 등 | 「Vてしまう」 문은 상(aspect)의 의미 가운데 기본적으로 [실현]과 [종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부가적으로 모달리티(modality)의 의미를 나타냄. |
| 藤井(1992), 등 | 「Vてしまう」문은 기본적으로 모달리티의 의미를 나타내고, 부가적으로 상의 의미를 나타냄. |
| 鈴木(1998), 倉持(2000), 등 | 「Vてしまう」문은 모달리티의 의미를 나타냄. |
| 高橋(1969), 吉川(1973), 등 | 「Vてしまう」문은 상과 모달리티의 의미 모두를 나타내지만, 중간적인 의미도 나타냄. |

한편, 「Vてしまう」문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인 「V어 버리다」문과 「V고 말다」문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 또한 일본어의 「Vてしまう」문의 연구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다시 말해 「V어 버리다」문과 「V고 말다」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이들 문의 의미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 않다(cf.최현배 1980, 김기혁 1987, 손세모돌 1996, 이선웅 1995, 호광수 2003 등). 이들 연구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V어 버리다」문과 「V고 말다」문

| | 「어 버리다」문 | 「고 말다」문 |
|---|---|---|
| 최현배(1937/1980) | 종료의 의미를 나타냄 | 보조동사로 취급하지 않음 |
| 김기혁(1987) | | 종료의 의미를 나타냄 |
| 남기심·고영근(1987) | 기대에 어긋나는 등의 심리적 부담감을 제외하는 의미를 나타냄 | 보조동사로 취급하지 않음 |
| 손세모돌(1996) | 화자의 인식이 포함된 완전히 끝남 혹은 완료의 의미를 나타냄 | 보조동사로 취급하지 않음 |
| 이선웅(1995) |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화자의 시야로부터 제거하는 의미 | 계속되고 있는 사안을 정지하는 상태로 만드는 의미 |
| 호광수(2003) | 선행동사의 종결을 의미 | |

상기 일본어 「Vてしまう」문의 선행연구에 대한 표1과 이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한국어의 「V어 버리다」문과 「V고 말다」문의 선행연구에 대한 <표 2>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론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일본어의 「Vてしまう」문, 한국어의 「V어 버리다」문과 「V고

말다」문이 상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는 완료의 의미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는 의미적으로 완료의 의미(이하 [한계성]이라고 부름)가 일본어의 「Vてしまう」문과 이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한국어의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을 연관 지을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다음 장에서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일본어의 「Vてしまう」문과 한국어의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대응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 3. 의미적인 측면에서의 대응관계

본 장에서는 「Vてしまう」문과 한국어의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에 나타나는 의미에 대해서 상(aspect)의 의미와 모달리티(modality)의 의미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 3.1 상(aspect)의 의미

전통적으로 어떠한 동사가 내재하고 있는 한계성(telic) 혹은 비한계성(atelic)의 의미를 구분해 주기 위한 몇몇 방법 가운데 하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사용하여 이들 부사와 동사가 공기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cf.Vendler 1967, Dahl 1981, Yang 2002, 三原 2004, 등). 일본어의 경우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間(かん)」과 「間で」를 이용할 수 있다(cf.三原 2004). 예를 들어 일본어의 상태동사 「悩む」는 「間」과 함께 나타날 수는 있으나, 「間で」와는 함께 나타날 수 없다.

(7) a. 12時間太郎は悩む。
b.*12時間で太郎は1悩む。

(7)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상태동사 「悩む」가 「間」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7a)와 같이 적격한 문이고, (7b)와 같이 「間で」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부적격한 문이다. 이는 「悩む」라는 동사의 의미적 특성에는 한계성이 없으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비한계성이라는 의미적 특성과 비한계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間で」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8) a. 12시간 동안 철수는 고민했다.
b.*12시간 만에 철수는 고민했다.

한편 일본어의 동사가 결과동사일 경우는 상태동사와 반대의 사실을 보여준다.

(9) a.*2時間皿が破れる。
b. 2時間で皿が破れる。

(9)에서 알 수 있듯이 결과동사 「破れる」가 「間」과 함께 나타나는 (9a)는 부적격한 문이지만, 「破れる」가 「間で」와 함께 나타나는 (9b)는 적격한 문이다. 이 또한 동사 「破れる」가 갖고 있는 의미특성으로 깨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한계의 의미를 갖는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 역시 한국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10) a.*2시간 동안 접시가 깨졌다.
b. 2시간 만에 접시가 깨졌다.

이처럼 일본어와 한국어에 있어서 어떤 동사의 의미적인 특성이 한계성을 갖는지 비한계성을 갖는지에 따라 각각 「間で/간 만에」과 「間/간」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나타날 수 있으며, 그 반대로는 나타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間で/간 만에」와 「間/간」의 의미적 특성을 「Vてしまう」문과 한국어의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에 적용시켜 이들 문들이 나타내는 상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a.*次郎は3時間で喜子に会ったことを後悔してしまった。
b. 次郎は3時間喜子に会ったことを後悔してしまった。
(12) a.*지로는 3시간 만에 요시코를 만난 것을 후회해 버렸다.
b. 지로는 3시간 동안 요시코를 만난 것을 후회해 버렸다.
(13) a. 지로는 3시간 만에 요시코를 만난 것을 후회하고 말았다.
b. 지로는 3시간 동안 요시코를 만난 것을 후회하고 말았다.

(11)-(13)의 「Vてしまう」문과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에서의 [V]는 「後悔する/후회하다」라는 상태동사이다. [V]가 상태동사인 「Vてしまう」문과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에 「間で/간 만에」이 나타나고 있는 (11a)-(13a)와 「間/간」이 나타나고 있는 (11b)-(13b)를 살펴보

면, 기본적으로는 「Vてしまう」문,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 모두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간 만에」가 나타나는 「V고 말다」문인 (13a)의 경우만은 「Vてしまう」문(11a), 「V어 버리다」문(12a)과는 달리 적격한 문으로 나타난다. 「간 만에」가 나타나는 「V어 버리다」문인 (12a)의 부적격성을 통해, 이 때의 「버리다」는 한계성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간 만에」가 나타나는 「V고 말다」문인 (13a)의 적격성을 통해, 이때의 「말다」는 상적 의미인 한계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V」가 결과동사인 경우를 살펴보면 (14)-(16)과 「Vてしまう」문,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이 모두 동일한 결과로 나타난다.

(14) a. 3時間で建物を完成してしまう。
b.*3時間建物を完成してしまう。
(15) a. 3시간 만에 건물을 완성해 버렸다.
b.*3시간 동안 건물을 완성해 버렸다.
(16) a 3시간 만에 건물을 완성하고 말았다.
b.*3시간 동안 건물을 완성하고 말았다.

「V」가 결과동사인 「완성하다/完成する」가 나타나는 「Vてしまう」문,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에서 「간 만에」와 「간 동안」이 나타날 경우에는 (14a-b)-(16a-b)에서 알 수 있듯이, 「Vてしまう」문,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이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즉 이 때의 「しまう」, 「버리다」, 「말다」는 모두 한계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동사인 경우에만 「버리다」가 상적의미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3.2 모달리티(modality)의 의미

杉本(1991/1992)에 따르면, 「Vてしまう」문에 있어서 「V」가 무의지의 상태동사인 경우라면 「Vてしまう」문은 모달리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7a)는 (17b)와 같이 화자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모달리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17) a. 太郎は宝ぐじに当たってしまった。
b. 太郎は宝くじに当たるとは予想してなかったけど、宝くじに当たった。

이와 같은 「Vてしまう」문과 대응하는 한국어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을 살펴보면 (18)-(20)과 같이 나타난다.

(18) a. 太郎は宝ぐじに当たってしまった。(=(17a))
b.??타로는 복권에 당첨돼 버렸다.
c. 타로는 복권에 당첨되고 말았다.
(19) a. 花子の考えは私の考えと異なってしまった。
b.*하나코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라 버렸다.
c. 하나코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말았다.
(20) a. 喜子はパソコンを売ったことを後悔してしまった。
b.*요시코는 컴퓨터를 판 것을 후회해 버렸다.
c. 요시코는 컴퓨터를 판 것을 후회하고 말았다.
(21) a. 松本は由美のことが気になってしまった。
b.*마츠모토는 유미의 일이 신경쓰여 버렸다.
c. 마츠모토는 유미의 일이 신경쓰이고 말았다.

(18)-(21)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어 「Vてしまう」문 (18a)-(21a)에 대응하는 한국어로는 「V어 버리다」문((18b)-(21b))이 아닌 「V고 말다」문((18b)-(21b))이다. 이는 「V고 말다」문이 「Vてしまう」문이 나타내고 있는 화자의 예상을 벗어나는 심정의미를 나타내는 모달리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이 「Vてしまう」문의 「しまう」와 「V고 말다」문의 「말다」가 모달리티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문에 명령형이나 요구형이 나타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柴谷(1973)는 명령문과 요구문의 주어는 동작주이어야 하며, 모달리티의 주어는 동작주가 되기 어려운 화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2) a. 吉野、メールを書き始めろ！
a'. 요시노, 메일을 쓰기 시작해라!
b. 吉野さん、メールを書き始めて下さい。
b'. 요시노씨, 메일을 쓰기 시작해 주세요.
(23) a.*吉野がメールを書くだろうろ！
a'.*요시노가 메일을 쓰겠지라!

b.*吉野さんがメールを書くだろう下さい。
b'.*요시노씨가 메일을 쓰겠지 주세요.

柴谷(1973)의 지적대로, (22)는 개시의 의미를 갖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동사 「始め/시작하」에 일본어 한국어 각각의 명령형 「ろ/-라」과 요구형 「下さい/주세요」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23)은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일본어와 한국어 형태인 「だろう/-겠지」 뒤에 각각의 명령형 「ろ/-라」과 요구형 「下さい/주세요」이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일본어의 「Vてしまう」문과 한국어의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에 명령형과 요구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4) a. 吉野、メールを書いてしまえ！
b. 吉野さん、メールを書いてしまって下さい。
(25) a. 요시노, 메일을 써 버려라!
b.*요시노, 메일을 쓰고 말아라!
(26) a. 요시노씨, 메일을 써 버려 주세요.
b.*요시노씨, 메일을 쓰고 말아 주세요.

(24)는 일본어의 「Vてしまう」문에 명령형 「え」와 요구형 「下さい」가 「しまう」뒤에 붙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25a), (26a)는 한국어의 「V어 버리다」문에 명령형 「라」와 요구형 「주세요」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25b), (26b)는 명령형과 요구형이 「V고 말다」문에는 나타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때의 한국어 「V어 버리다」문의 「버리다」는 한계성이라는 상의 의미를 내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V고 말다」문의 「말다」는 상의 의미가 아닌 모달리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3.1절과 3.2절의 고찰 결과를 정리하면, 「V」의 의미적 제한은 있기는 하지만, 한계성이라는 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일본어의 「Vてしまう」문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V어 버리다」문과 「V고 말다」문 모두라고 할 수 있으며, 모달리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일본어의 「Vてしまう」문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V고 말다」문이라고 할 수 있다.

# 4. 통사적 측면에서의 대응관계

본장에서는 일본어의 「Vてしまう」문의 내부구조에 있어서 컨트롤(control)구조와 상승(raising)구조하는 두 개의 구조를 생각할 수 있으며, 이들 내부구조와 대응하는 한국어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을 제시할 것이다. 내부구조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증의 수단은 관용표현의 해석 여부와 외항의 제한 여부이다.

먼저 관용표현의 해석 여부를 통해 「Vてしまう」문,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의 내부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Nishigauchi(1993), 三原(1997)에 따르면 주어를 갖고 있는 관용표현이 내포절 안에서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나타날 경우 그 문은 컨트롤(control)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관용표현의 해석이 나타날 경우는 상승(raising) 구조라고 생각할 있다. 예를 들어 Nishigauchi(1993)는 영어의 「The cat is out of the bag.(비밀이 새다)」라는 관용표현을 컨트롤구문과 상승구문에 각각 넣어 생각해 보면 관용표현의 해석이 나타나는 경우는 상승구조이고,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나타나는 경우는 컨트롤구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7) a. The cat seems [t to be out of the bag].
b. The cat tried [PRO to be out of the bag].

(27a)는 「seem」을 주절 동사로 하는 상승구문이고, (27b)는 「try」을 주절 동사로 하는 컨트롤구문이다. 이들 구문에 「The cat is out of the bag.」라는 관용표현이 각각 내포되어 있는데, (27a)에서만 「비밀이 새다」라는 관용표현의 해석이 가능하고 (27b)에서는 문자 그대로의 해석만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용표현의 해석 여부를 이용하여 일본어의 「Vてしまう」문과 대응하는 한국어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의 내부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8) a. (たまに)猿も木から落ちてしまう。
b. (가끔씩)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다.
c. (가끔씩)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고 만다.

일본어와 한국어에서 구조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관용표현인 「猿も木から落ちる/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가 일본어의 「Vてしまう」문 (28a)에 내포된 경우는 「猿も木から落ちる」

의 관용표현이 문자 그대로의 해석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28a)의 「Vてしまう」문은 내부구조가 (29)와 같은 컨트롤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다.

(29) [s 猿i も [s PROi 木から落ち] てしまう]

한편 「Vてしまう」문과 대응하는 한국어 「V어 버리다」문 (28b)와 「V고 말다」문 (28c)를 살펴보면, (28b)는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나타나는 반면, (28c)는 관용표현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V어 버리다」문 (28b)는 (29)의 「Vてしまう」문과 같은 컨트롤구조인 (30a)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V고 말다」문 (28c)는 (30b)와 같은 상승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다.

(30) a. [s 원숭이i도 [s PROi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다]
b. [s 원숭이i도 [s ti 나무에서 떨어지]고 만다]

다음은 외항에 대한 제한 여부를 통해 「Vてしまう」문,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의 내부구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컨트롤구조와 상승구조를 간단히 그려보면 각각 (31a)와 (31b)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1) a. [s 주어i [s PROi …… V] V]
b. [s 주어i [s ti …… V] V]

(31a)의 구조로부터 컨트롤구조에는 외항의 주어가 내포문의 주어 PRO와 동일해야 하는 제한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상승구조인 (31b)의 구조를 보면 외항의 주어는 내포문의 주어가 이동한 모습이므로 외항에 대한 제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3)]

이와 같은 외항에 대한 제한을 통해 「Vてしまう」문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의 내부구조가 컨트롤구조인지 상승구조인지를 알 수 있다.

(32) a. 虎ちゃんが遊んでしまった。
b. 飛行機が壊れてしまった。
c. 嵐が吹いてしまった。

3) 컨트롤구조와 상승구조에 따른 외항의 제한 현상은 影山(1993)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Vてしまう」문인 (32)가 모두 적격한 문으로 나타난다는 사실로부터 「Vてしまう」문은 외항 주어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Vてしまう」문의 내부구조는 (31b)과 같은 상승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32)에 대응하는 「V어 버리다」문과 「V고 말다」문에 대한 외항 제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33) a. 토라군이 놀아 버렸다.
b. 토라군이 놀고 말았다.
(34) a. 비행기가 고장나 버렸다.
b. 비행기가 고장나고 말았다.
(35) a.*폭풍이 불어 버렸다.
b. 폭풍이 불고 말았다.

「V어 버리다」문 (33a)-(35a)와 「V고 말다」문 (33b)-(35b)를 비교해 보면, 「V어 버리다」문은 (33a)와 (34a)는 적격한 문으로 나타나지만, (35a)는 부적격한 문으로 나타난다. 이는 「V어 버리다」문이 외항 주어에 대한 제한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31a)와 같은 컨트롤 구조임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V고 말다」문인 (33b)-(35b)는 모두 적격한 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V고 말다」문은 외항 주어 제한이 없는 (31b)와 같은 상승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다.

## 5. 의미와 내부구조의 대응관계

본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Vてしまう」문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인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의 의미적인 대응관계와 4장에서 살펴본 「Vてしまう」문과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의 내부구조의 대응관계가 상호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정리하면 제시할 것이다.

먼저 3장에서 제시한 일본어의 「Vてしまう」문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의 의미적인 대응관계는 (36)과 같이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36) 한계성이라는 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일본어 「Vてしまう」문에대응하는 한국어는 「V어 버리다」문과 「V고 말다」문 모두이며, 모달리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일본어 「Vてしまう」문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V고 말다」문이다.

또한 4장에서 제시한 「Vてしまう」문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의 내부구조의 대응관계는 (37)과 같이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37) 관용표현의 해석 여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본어의 「Vてしまう」문과 「V어 버리다」문의 내부구조는 관용표현의 해석이 나타나지 않고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나타나는 컨트롤구조이며, 「V고 말다」문의 내부구조는 관용표현이 나타나는 상승구조라는 점이다. 한편, 외항 주어 제한 여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Vてしまう」문과 「V고 말다」문의 내부구조는 외항 주어 제한이 없는 상승구조이지만, 「V어 버리다」문의 내부구조는 외항 주어 제한이 있는 컨트롤구조라는 점이다.

(36)과 (37)의 내용을 조합해 보면 일본어의 「Vてしまう」문과 대응하는 한국어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의 대응관계는 다음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Vてしまう」문과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의 대응관계

| | 의미 | | 내부구조 | |
|---|---|---|---|---|
| | 상(한계성) | 모달리티 | 상승구조 | 컨트롤구조 |
| 「Vてしまう」문 | √ | √ | √ | √ |
| 「V어 버리다」문 | √ | | | √ |
| 「V고 말다」문 | √ | √ | √ | |

<표 3>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통사구조인 내부구조는 일본어의 「Vてしまう」문과 대응하는 한국어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의 대응관계에 있어서 일대 일의 대응관계를 이루지만, 의미적인 대응관계는 완전한 일대 일의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しまう」와 「말다」, 「버리다」의 어휘적 특성이 상호 공유하는 부분은 있지만 완전히 같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로 다른 언어를 비교할 경우 통사적인 측면보다는 의미적인 측면의 비교가 더욱 복잡함을 시사한다.

# 6.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일본어의 「Vてしまう」문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의 의미적인 측면과 통사적인 측면에서의 대응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통사적인 측면에서의 고찰은 심층구조나 표면구조의 통사구조가 아닌 컨트롤구조인지 상승구조인지에 대한 내부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는 아래와 같이 5장의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Vてしまう」문과 「V어 버리다」문, 「V고 말다」문의 대응관계

| | 의미 | | 내부구조 | |
|---|---|---|---|---|
| | 상(한계성) | 모달리티 | 상승구조 | 컨트롤구조 |
| 「Vてしまう」문 | √ | √ | √ | √ |
| 「V어 버리다」문 | √ | | | √ |
| 「V고 말다」문 | √ | √ | √ | |

**【參考文獻】**


김기혁(1987)『국어 보조동사구문의 통사론』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194

김영희(1993)「의존동사구문의 통사적표상」『국어학』23, 국어학회, pp.159-190

남기심·고영근(1987)『표준국어문법론』탑 출판사, pp.5-210

박용일(2006)「「Vてしまう」문에 나타나는 재구조화현상과 부정어 제약」『일어일문학연구』57, 한국일어일문학회, pp.101-119

손세모돌(1996)『국어 보조동사 연구』한국문화사, pp.12-186

이선웅(1995)「현대국어의 보조동사 연구」『국어연구』133, 국어연구회, pp.1-126

최현배(1973/1980)『우리말본』정음사, pp.3-214

호광수(2003)『국어 보조용언 구성 연구』역락, pp.7-210

井上和子(1976)『変形文法と日本語(上·下)』大修館書店, pp.3-268

影山太郎(1993)『文法と語形成』くろしお, pp.1-389

倉持保男(2000)「補助動詞「(-て)しまう」について」『日本語の意味と文法の風景；国広哲弥教授古稀記念論文集』ひつじ書房, pp.289-300

杉本武(1991)「「てしまう」におけるアスペクトとモダリティ」『九州工業大学情報工学紀要』4, 人文社会科学, pp.109-125

_____(1992)「「てしまう」におけるアスペクトとモダリティ(2)」『九州工業大学情報工学紀要』4, 人文社会科学, pp.61-73

鈴木智美(1998)「「-てしまう」の意味」『日本語教育』97, 日本語教育学会, pp.48-59

高橋太郎(1969)「すがたともくろみ」『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むぎ書房, pp.119-153
藤井由美(1992)「「てしまう」の意味」『ことばの科学』5, むぎ書房, pp.17-40
益岡隆志(1992)『モダリティの文法』5, くろしお出版, pp.1-176
三原健一(1997)「動詞のアスペクト構造」『ヴォイスとアスペクト 日英語比較選書』7, 研究社出版, pp.108-196
_____(1992)『アスペクト解釈と統語現象』松柏社
吉川武時(1973)「現代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むぎ書房, pp.157-327
Dahl, O.(1981) *On the Definition of the Telic-Atelic(Bounded-Nonbounded) Distinction,* in P.J.Tedeschi & A. Zaenen(ed), Syntax and Semantics 14: Tense and Aspect, Academic Press, pp.9-178
Kato, Y.(1985) *Negative Sentences in Japanese, Sophia Linguistica 19,* Monograph Sophia University, pp.1-127
Nishigauchi, T.(1990) *Quantification in the Theory of Grammar,* Kluwer, pp.1-269
Vendler, Z.(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pp.6-98

논문투고일 : 2015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07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7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7월 20일

## <要旨>

###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과 일본어 「Vてしまう」 문의 내부구조와 의미

본고에서는 일본어의 「Vてしまう」 문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V어 버리다」 문, 「V고 말다」 문의 의미적인 측면과 통사적인 측면에서의 대응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통사적인 측면에서의 고찰은 심층구조나 표면구조의 통사구조가 아닌 컨트롤구조인지 상승구조인지에 대한 내부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는 5장의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Vてしまう」문과「V어 버리다」문,「V고 말다」문의 대응관계

| | 의미 | | 내부구조 | |
|---|---|---|---|---|
| | 상(한계성) | 모달리티 | 상승구조 | 컨트롤구조 |
| 「Vてしまう」문 | √ | √ | √ | √ |
| 「V어 버리다」문 | √ | | | √ |
| 「V고 말다」문 | √ | √ | √ | |

### On the Internal Structure and Its Meaning of the Corresponding Korean Expression and Japanese [Vtesimau] Sentences

This paper explored the corresponding relations of both meaningful and syntactic aspects of a sentence, expressed by 「Vtesimau」 in Japanese and its corresponding sentence「Veo beorida」, 「Vgo malda」 in Korean. In particular, the examination of the syntactic perspective focused on the internal structures such as control or ascending structure, not the syntactic structures of the deep or surface structure. The results of examination is summarized in the Table-3 of Chapter 5.

Table-3. The corresponding relations of the sentence 「Vtesimau」 with the sentence 「Veo beorida」 and 「Vgo malda」

| | Meaning | | Inernal Structure | |
|---|---|---|---|---|
| | aspect(telic) | modality | raising | control |
| 「Vtesimau」sentence | √ | √ | √ | √ |
| 「Veo-beorida」sentence | √ | | | √ |
| 「Vgo-malda」sentence | √ | √ | √ | |